

4학년 2학기를 장식할 국제통상학과의 전공 선택 과목을 정하는 것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은 생각보다 신중하지는 않았음을 고백한다. 학군단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게 최대한 시간표가 비어있지 않고 저녁이나 아침 시간에 몰려있기를 바랬다. 다른 선택과목들이 저마다의 시간표의 공간을 차지하는 와중에 수요일만큼은 텅 비어있는 광경이 한동안 나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 고민의 끝에는 하루를 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학점을 채우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이 자리하고 있었다. 결국 아시아공동체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고민이나 고찰을 해 보기는커녕 접근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과연 수업 이수를 마치고 난 지금에서 다시 비슷한 과목을 듣게 된다면 똑같이 행동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으리라 믿는다.

아시아공동체론이 매주 특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교내외의 저명한 인사를 초청한다는 정보를 들은 것은 학군사관후보생의 하계입영훈련을 마치고 난 뒤 개강일로부터 약 이틀 전의 일이었다. 특강이란 말에 율곡관이나 다산관의 강당을 제일 먼저 떠올렸고, 그 다음에는 강당의 경사진 면 사이에서 혹시라도 졸음을 면치 못했을 때의 당혹감을 떠올렸다. 이런, 혹시라도 강당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눈꺼풀에 무게를 얹어버리는 강당의자에서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찰나에 나의 심각할 수도 있는 고찰을 단번에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수업이 강당이 아닌 종합관 503호에서 진행된다는 점. 넓고 넓은 강당에서 교수님이 나를 보시는지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일찍만 온다면 앞자리를 선점하여 교수님께 한껏 집중하는 내 눈동자를 어필하면 될 일이었다.

내 고민을 무위로 만들어버린 이유 두 번째는 일체 농담의 요소 없이 커리큘럼 내에서 매주 진행된 특강의 전 수업이 나의 흥미와 관심사를 한 번에 관통했다는 것이다. 본래 필자는 EU와 최근 브렉시트에 대한 관심사가 많았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성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낀 유럽 사람들은 유럽 연합을 만들어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였다. 분명히 유럽 연합은 유럽이라는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음을 여러 곳에서 평가받아왔으며, 그것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유럽연합을 최근 영국이 탈퇴하는 브렉시트는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해 인류 보편의 가치가 영향을 받고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우려를 낳는 주요 사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유럽연합과 같은 협력의 가치가 정말로 훼손된 것일까? 하물며 이런 협력의 가치를 발현할 기회마저도 사라진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아시아공동체론은 이러한 내 스스로의 질문을 논제에 대한 고찰로 발전시켰다. 본래 한국, 중국, 일본의 3개 국가는 정치, 경제, 군사력에 있어서 쉽게 뒤쳐질 수 있는 국가가 아니며, 이 3국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나갈 경제권의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였다. 성공하기만 한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일으키는 데 충분한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라는 범주와 개념을 논의하는 것조차 제대로 합의된 기회와 시간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그마저도 각 국가마다의 의견이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분분해지면서 아시아 협력의 길은 소원해보였다. 수업과 매주 특강은 무엇이 협력의 길을 가로막으며,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견지해야 할 시선이 무엇이 있는지, 등을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었다.

아세안이 존재함에도 한중일 3개 국가의 협력이 소원한 현실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곁핥기식 고찰을 하고 있을 때는 어언 수업이 종강과 결실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는 한창이었다. 박성빈 교수님의 한일관계에 대한 수업은 나의 시선을 단번에 뒤바꿔놓는데 충분했다. 과거 일본 정부의 독도관련 왜곡정보 교과서 표기나, 위안부 문제에 관련한 전·현직 의원들의 망언으로 인해, 누군가가 대한민국의 군사적 주적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주저 없이 일본이라고 답하던 시절이 있었다.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 제국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평화 헌법을 개정하는 움직임과 어우러질 때, 그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공포 섞인 경계심이 두텁게 불신으로 쌓여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의 불신이 적어도 현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였는가라는 질문에는 현재 수업을 마친 후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할 수 있다.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합치된 경우에 순탄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 한일기본조약의 이후 경제적 안정을 어느 정도 확보한 한국의 역사 문제에 대한 시선이 환기되고, 일본은 국력이 신장되는 데 앞서서 한국과의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던 시기가 맞아떨어졌다는 수업 내용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즉, 문제가 해결되려면 양자의 상황과 목표가 서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접근을 환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위안부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발언들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일 관계의 개선이 역사 문제 해결의 선결 조건이 되어가고 있는 정치적 현실이 대두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일본 천황에게 한국 방문을 거부하는 내용의 발언은, 일본의 상징이자,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를 함부로 대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과오이자 실익이 전무한 행동에 가까웠다. 이 일로 인해 한국에 우호적인 성향을 보였던 의원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모조리 참패하고 일본이 우익에 더 편향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한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에게 한 가지 시사점을 선사한다. 진정으로 협력을 원한다면 역사의 피해자인 한국도 일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걸 수업에서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일관계를 기존과는 다른 시선에서 보게 되었다. 이는 조금 더 양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고 이것이 조금 더 건강한 발전 방향이 될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

한일 관계만을 예로 들었지만, 아시아공동체론은 아시아에 소속된 수많은 국가들을 탐구해보고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으며, 한국과의 관계에 시사점을 부여하는 화두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북한노동자, 일본의 재일한국인,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 경제력이 가지는 입지, 중국의 국경전쟁, 등은 각국과의 관계를 넘어서 아시아 협력을 이루어내는데 먼저 해결되어야 할 선결 조건으로서 작용한다. 아시아의 협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아주대학교에서 만들어진 아시아공동체론을 통해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관련 지식과 관점, 고찰을 얻고,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해 이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초석이 닦일 수 있다면, 적어도 후대에 더 나은 한국, 동아시아, 아시아를 만들어나가기에 우리 세대가 충분한 역할을 다 한 것이라 감히 평가해본다.